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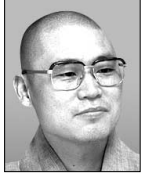
제2회 청우 동국상 수상
한국청소년단체협회 회장 현성 스님이 청우 최재구선생추모사업 기념회가 12월 18일에 시상한 제 2회 청우 동국상을 수상했다.



스리랑카 대총사 품수
서울 금강사 주지 자우 스님은 12월 1일 스리랑카 라만야 종단으로부터 대총사마하야카 및 명예 종정에 추대 서품을 받았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12월 15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3기 위원으로 위촉됐다.



여주교도소서 송년법회
경기 양평사암연합회 회장 스님(사나사 주지)은 12월 19일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2003 송년 법회를 봉행했다.



일주문



'자아와 명상' 주제로 특강
서울 성북구 정릉 보경사 주지 원공 스님은 12월 15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자아와 명상'을 주제로 겨울방학 특강을 했다.



신인문학상 수상 문단 데뷔
인천 중부경찰서 경승 정암 스님(안심선원 주지)은 최근 월간 문학세계에서 신인 문학상을 수상, 문단에 데뷔했다.



'나눔 한마당' 자선바자회
대구 보현암 주지 선전 스님은 보현다도회와 공동으로 12월 12-13일 대구 법성학원 강당에서 '나눔의 한마당'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아이네임즈 대표이사에
경기불교문화원 김태제 이사장은 12월 17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한글도메인 등록업체 아이네임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21세기 한국연구소 개소식
21세기 한국연구소 김광식 소장은 12월 18일 서울시 마포구 황금비늘 빌딩 4층에서 21세기한국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공불련 신임 총무 장병원 씨
감사원 감사1국2과 장병원 부감사관은 12월 30일자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신임 총무로 선임됐다.



은평구청 불심희, 송년법회
서울 은평구청 불심희 김은혜 회장은 12월 17일 강원도 백담사와 만해마을, 낙산사 등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돌볼 사람 많아 아플 틈도 없어”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이경출 씨



“내 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입니다.”
12월 19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주관하는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는 조계종 자원봉사단 소속 봉사자 이경출(57·사진) 씨.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닌란 생각에 봉사로 새 삶을 회향하기로 마음먹었다.
일주일 내내 이씨의 시간표는 봉사 일정으로 뻑뻑하다. 월요일은 법실에서 철새 안내, 화요일은 국립재활원에서 목욕봉사, 수요일은 월드컵 공원 씨.

모태신앙으로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는 이씨는 1991년 불교방송 문화센터에서 혜장 스님 등의 강좌를 들으며 불교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빠져들어 갈 즈음 지방인 신부전증으로 쓰러져 힘든 투병생활을 겪었다. 이씨는 회복후 지금의

안내, 목요일에는 한일병원에서 중앙공급실 봉사를 하고 있다.
“봉사를 하면서 많이 건강해졌어요. 제친 분사가 곧 기도합니다. 부처님이 언제 절에 와서 기도하러 하신 적이 있나요? 초하루날 전 봉사하러 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사가요.”
강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본지 선정 올해의 인물

‘환경’ 화두 국민뇌리에 심어

새만금 삼보일배 주역 수경 스님

2002년 수경 스님(사진)의 화두는 ‘산’이었다면 2003년은 ‘갯벌’이었다. 2002년 북한산을 살리기 위해 철마선원에서 정진했던 스님은 2003년에는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삼보일배를 하며 정진했다.

65일간 4개 종교 성직자들이 함께 한 삼보일배는 종교가 그 어떤 정치적 맹세보다 한국사회의 상처를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한 상대에 대해서는 가장 비폭력적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것에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시위문화’를 만들었다.

수경 스님은 삼보일배 도중 탈진해 쓰러지기도 했다. 평소 알아왔던 무릎 관절염과 녹내장이 심해져 의사로부터 실명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듣기도 했다. 격렬한 고행으로 근육세포가 죽어 빠져나가고 있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도 들었다. 그러나 스님은 다시 아스팔트로 나섰다. 링거 주사를 맞으며

휠체어에 탄 채 서울에 입성했던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고행은 새만금 뿐 아니라 ‘환경’이라는 화두를 국민들의 뇌리에 깊숙이 새겨 넣었다. 법원도 공사중단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수경스님 등 삼보일배단은 환경단체인 환경과공해연구회로부터 ‘2003년 환경인’으로 선정됐으며, 환경운동연합 선정 2003 환경인상 ‘녹색시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삼보일배는 환경운동연합이 뽑은 ‘올해의 10대 환경뉴스’ 뿐 아니라, 국내외 저명 환경운동가와 환경학자들이 선정한 ‘2003 지구촌 10대 환경뉴스’에 포함됐다.

수경 스님은 내년부터 남원 실상사 주지 도법 스님과 함께 ‘생명평화 탁발순례’를 떠난다. 평화의 기운을 전국토에 심기 위해 다시 길 위에서 정진할 계획이다.

스님은 “북한산이 곤경에 처해 있는 지금 ‘올해의 인물’ 선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천성산 수호열기 전국에...

두차례 단식으로 시선집중 지울 스님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낍니다. 10만 소송인단이라는 귀중한 인연들을 만나 도롱뇽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모든 분들이 끝까지 저와 천성산을 떠나 보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문제로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45일간의 두 번째 단식을 끝내고 도롱뇽 소송을 진행중인 지울 스님(사진)의 2003년은 ‘거리’에서 보낸 한해였다. 3월 14일 38일간의 단식을 끝내고 잠시 천성산으로 돌아갔던 스님은 8월 초 다시 부산시청 앞에서 돌아왔다. 이때부터 44일 동안 매일 삼천배를 했고,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부산역에서 화엄법까지 삼보일배로 올랐다. 그리고 45일 동안의 두 번째 단식과 도롱뇽 소송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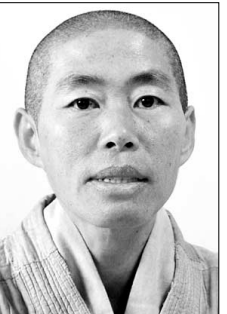
일련의 과정들을 “천성산 하나만 바라보면서 걷다보니 그렇게 됐다”고 정리한 스님은 “운동의 과정을 통해 격렬해지고 극단적으로 흐르는 감정들을 정화하고 중도를 지켜내는 것이 곧 수행임을 알게 됐다”며 그간의 과정 속에서 겪었을 심적인 고통을 토로했다.

지금 스님은 도롱뇽의 마음이 되어 천성산의 얘기를 세상에 전하고 있다. “도롱뇽 소송은 10만 명의 사람들이 환경에 눈을 뜨게 해준다”고 강조한 스님은 “자연환경을 잃게 되면 서 인드라마에 연결된 구슬처럼 연쇄적으로 파괴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 미래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내년 한해를 ‘양날의 칼’로 비유했다. 공사가 강행될지도 모를 위기에 변화가 많은 것이라는 긴박함을 담고 있는 말이다. “공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그 이후는 산의 소리를 따라갈 뿐 어떻게 진행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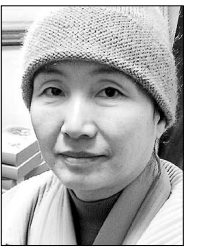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처럼 천성산을 지키는 일은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는 스님은 1월 5일부터 보름동안 도롱뇽 소송 전국투어를 갖고 천성산 운동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명 사랑을 담은 책, ‘도롱뇽 출석했습니다(가제)’도 내년 1월 중순경 출판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번뇌벗고 포교사의 삶 살립니다”

불가 귀의 안정환 선수 모친 안금향 보살



“그동안의 모든 번뇌를 지워버리고, 열심히 수행중인 포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축구선수 안정환 씨의 모친 안금향 씨(46·사진)가 서울 구기동 자비정사에서 불법에 귀의하는 발원문을 낭독하며 본격적인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다.

는 시간을 갖는 동안 불법에 귀의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안 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10월에 구속, 지난 12월 5일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안 씨는 앞으로 자비정사 주지 묘심 스님의 지도아래 수행하게 되며, 내년 1월 중 삭발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상희 기자

제1회 대원상 시상식



임제선학원 서울포교당 개원



대한불교임제선학원(총무원장 마정은)은 12월 17일 서울 중랑구 망우3동에 서울지역 포교도량인 용마 관음사를 개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인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박광서 서강대교수, 동산반야회 김재일 법사를 비롯해 2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국불교임제선학원(총무원장 마정은)은 12월 15일 서울 중랑구 망우3동에 서울지역 포교도량인 용마 관음사를 개원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대각회 총교 스님, 임제선학원 종장 죽산 스님, 일봉사 조실 해안 스님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02) 496-3952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월(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

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권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항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권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코티드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을 통해 태아에게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권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가 두통까지 걸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권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액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주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 ▶ **해당되는 증상(0)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대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굳은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딱딱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번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개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CUMIN · 한국향원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햇오가피를 수확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올겨울 수확하는 햇오가피로 만들어 더욱 새로워진 수신토종오가피! 5대신문 히트상품선정으로 그 품질을 인정받은 수신토종오가피! 아직도 안 챙기셨어요?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상담과 동시에 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자재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수신토종오가피 오가피와 여러 씨앗으로 만든 성광수 생씨앗배게

문의전화는 02)447-0047